

광주여대 총장기 제27회 대학양궁선수권대회 성료

전국 25개 대학교 220여명 선수들 나흘간 실력 겨뤄 순천대 탁해운 女 리커브 개인·혼성 은...광주여대 등

‘광주여대 총장기 제27회 한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가 22일 성황리에 폐막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25개 대학교 22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9일부터 나흘간 광주여대 잔디구장에서 치러졌다. 그동안 우수 공사들을 꾸준히 배출하며 ‘세계 최강’ 한국 양궁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 이번 대회에서 지역 공사들은 빛나는 활약을 펼쳤다.

순천대 탁해운은 이번 대회 여자 리커브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탁해운은 조아라(목원대)를 6-0으로, 박나원(안동대)을 7-3으로 꺾고 8강에 오른 뒤 한주희(동서대)를 6-2으로, 4강에서 정다영(한국체대)을 7-3으로 제치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 탁해운은 김세연(경희대)에 2-6으로 패하며 2위를 기록했다.

리커브 혼성 경기에는 조율·탁해운(이상 순천대)으로 구성된 전남팀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선수단은 이날 열린 혼성 본선에서 강원(최민재·장아현)을 6-2로 제친 뒤, 서울(문규호·조수혜)에 5-4로 승리하며 준결승에 진출했고 대구를 5-1로 꺾고, 인천에 2-6으로 패하며 2위를 기록했다. 혼성에서 경기를 펼친 광주여대는 여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여대는 목원대를 5-4, 경희대를 5-4로 제친 뒤 준결승에서 계명대를 상대로 2-6으로 패하면서 동서대와 공동 3위에 올랐다.

1998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27회째를 맞은 한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는 2011년 14회 대회부터 광주여대가 주관하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양궁 명문’ 광주여대는 2012 런던 올림픽 기보배,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최미선, 2020 도쿄 올림픽 안산 등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며 ‘국가대표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한국대학양궁연맹 회장을 11년간 역임하고 있는 광주여대 이선재 총장은 대회를 마치고 웃은 날씨 속 열전을 펼친 대학 공사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이 총장은 “폭염과 소나기로 인한 곳은 날씨 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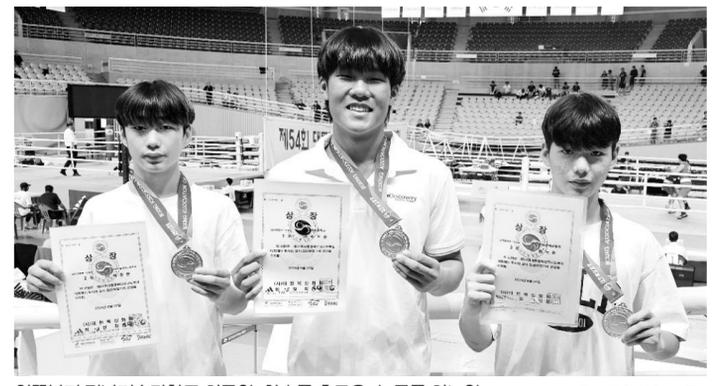
서 개최된 제27회 광주여대학교 총장기 한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릴 수 있도록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 양궁 선수들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량을 더욱 발전시켜 대한민국 양궁을 빛내는 훌륭한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고 전했다. 또 “나흘 간의 긴 대회를 무사히 마친 대학의 선수단에게 수고했다고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한국대학양궁연맹 회장으로서 우리나라의 양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파리 스타’ 김예지·박하준·양지인 나란히 정상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2024 파리 올림픽 메달리스트 김예지(임실군청·사진), 박하준(KT), 양지인(한국체대)이 나주 전남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제54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에서 정상을 올랐다. 올림픽 여자10m공기권총 은메달리스트 김예지는 22일 열린 10m공기권총 여자 일반부 결선에서 242.8점을 쏘며 우승을 차지했다. 김예지는 단체전에서도 임실군청 김예지·윤선정·이시운·황성온과 1724점을 합작하며 1위에 올라 2관왕에 등극했다. 올림픽에서 같은 종목 금메달을 획득했던 오예진은 이날 136.8점으로 7위를 기록했다. 금지현과 파리 올림픽 사격 혼성 공기소총10m 은메달을 합작했던 박하준은 이날 남자 일반부 50m 3자세 경기에서 단체전1위, 개인전 2위를 기록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박하준은 개인전에서 448점으로 2위에 오른 뒤 단체전에서 KT 김현준·김종현·김상도와 대회신기록인 1743점을 합작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박하준은 앞서 21일 진행된 공기소총 남자 일반부에서도 개인·단체전 2위에 올랐다. 양지인은 21일 열린 여자 대학부 25m 권총 결선에서 33발을 명중하며 1위를 차지했다. 양지인은 한국체대 이현민, 김민서, 이연주와 함께 출전한 단체전에서 1737점으로 우승하며 대회 2관왕에도 올랐다. 오는 23일에는 한국 역대 하계 올림픽 100번째 금메달의 주인공 반효진이 이번 대회 자신의 첫 경기 10m공기소총 여자 고등부에 출전한다. 양지인도 이날 25m권총과 10m공기권총 여자 대학부 경기에서 다시 한번 사대에 선다. 오는 24일에는 장성 출신 조영재가 속사권총 남자 일반부 경기를 치른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왼쪽부터 전남기술과학고 최준원, 화순중 추도윤, 능주중 최노원.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 복싱 ‘임애지 키즈’ 탄생 예고

대통령배 전국시도 복싱대회 금1·은3·동3 활약

전남의 복싱 중·고선수단이 전국무대에서 활약하며 ‘임애지 키즈’의 탄생을 예고했다. 전남 복싱 꿈나무들은 지난 14일부터 22일 까지 열린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54회 대통령배 전국시도 복싱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가벼운 몸놀림을 선보인 화순중 추도윤(3년)은 남중부 -80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3월 대한복싱협회장배 대회와 지난 5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1위를 기록했던 추도윤은 이번에도 금메달을 더하며 화순 복싱의 위용을 보여줬다. 복싱 입문 9개월 만에 이번 대회에 첫 출전

한 목표에 향한 김태서(3년)는 남중부 -46kg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취미로 복싱체육관을 다녔던 김태서는 체육관 감독의 권유로 이번 대회에 나가 소년체전 메달리스트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2위를 차지했다. 이어 남중부에서 전남체중 장원(2년 -42kg급), 전남체중 손현준(1년 -44kg급), 능주중 최노원(3년 -52kg급)이 동메달을 뒀다. 남고부에서는 전남체고 정광진(1년, -48kg급)과 전남기술과학고 최준원(2년, -54kg급)이 은메달을 추가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태백여신’ 박정현 ‘월드3쿠션 서바이벌’ 우승컵

일본·네덜란드 3개국 16명 참가 국내 랭킹 2위 박정현이 2024 월드3쿠션서바이벌에서 우승컵을 들었다. 박정현(전남당구연맹)은 지난 21일 서울 비타500콜로세움에서 열린 ‘2024 월드3쿠션 서바이벌’ 여자부 결선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일본·네덜란드 3개국 16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 여자부 경기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8명이 2개 조로 나뉘어 준결승전을 치른 뒤 각 조 1·2위가 결승에 진출해 양자 싸움을 벌였다. 박정현은 준결승 1전에서 2위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초반 주춤했던 박정현은 9이닝째 12점을 획득, 10-13이닝 동안 16점을 더하며 선두(50점)로 전반을 마쳤다. 이후 꾸준히 점수를 따내며 2위와의 격차를 벌린 박정현은 후반 12이닝에서 90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박정현은 “결승전 내내 조마조마했는데 운이 많았다. 작년에는 결승 4명 중 4위를 했는데 올해 같은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니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난 2024 태백산배 전국3쿠션 당구대회 우승으로 ‘태백산배 3연패’를 이루며 ‘태백여신’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박정현은 “너무 마음에 드는 별명이다. 태백산배를 통해 오는 9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3쿠션선수권 출전 티켓도 얻게 됐다. 태백에 좋은 기운이 있는 것 같다”며 “세계 무대라 긴장은 되지만, 다른 생각 없이 내 앞에 놓인 당구공만 신경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내 랭킹 2위 박정현(전남당구연맹)은 21일 서울 비타500콜로세움에서 열린 ‘2024 월드3쿠션 서바이벌’ 여자부 결선에서 1위를 차지했다. <박정현 제공>

광주의 염희주(광주당구연맹)도 이번 대회 3위에 올랐다. 준결승 2번 2위로 결승에 진출한 염희주는 전반 3이닝 만에 15점을 획득하며 선두를 달렸지만, 이후 주춤한 사이 박정현과 허채원(한국체대)이 치고 나가면서 54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염희주는 “준결승을 마치자마자 결승전에 들어가 몸상태가 썩 좋지 않았고, 앞 순서였던 테레사(네덜란드)의 공이 수비형태로 많이 와서 경기가

안 풀리다보니 멘탈도 흔들렸다”며 “재정비해서 오는 9월 고성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 노려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22일 시작된 남자부 결승에는 국내 랭킹 3위 김행직(진도군청)이 우승에 도전한다. 김행직은 지난 3월 2024 국토정중앙배 전국당구대회와 7월 2024 태백산배 전국3쿠션 당구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배드민턴협, 안세영 진상조사 잠정 중단

문체부, 시정 명령 안세영(22·삼성생명)의 자식 발언과 관련한 대한배드민턴협회 자체 진상조사가 잠정 중단됐다. 22일 협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진상조사위원 활동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협회에 내렸다. 앞서 문체부는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진상조사위원을 구성하라’고 권고한 바 있는데, 여기서 조치 수위를 한 층 더 끌어올린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사위 해체나 종료는 아니고 일단 멈춘 것은 사실이다”라면서 “문체부가 협조를 구할 경우 진상조사위원들이 활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난 16일 자료를 내고 “협회 정관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진상조사위원 구성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문체부는 “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했지만, 진상조사위원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세영 발언과 관련한 진상조사는 향후 문체부 조사단과 대한체육회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다만 협회는 진상조사위원을 통하지 않더라도 안세영과의 면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상조사위원은 이번 주 안세영의 의견을 청취하려 했으나 일정 등의 문제로 조사가 성사되지 않았다. 안세영은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회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방전이 아닌 제가 겪은 일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8월)
 일시 : 2024-08-03(토) ~ 2024-08-31(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8.8.(목)-9.(금) 오후 5시 여름기획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GAC 공모전시 영·호남 장애작가 미술교류전 : 피어오르다
 일시 : 2024-08-16(금) ~ 2024-09-15(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